



예루살렘의 새 시장(市長)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 년 11 월 16 일

예루살렘의 새 시장(市長)

저희는 예루살렘 새 시장으로 니르 바르카트가 뽑힌 것을 기뻐하며, 이것이 중요한 영적 승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르카트는 성공한 기업가며, 이스라엘 육군 소령이요 예루살렘 시 쇄신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 둘이 그의 선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선거 당일, 결과는 굉장히 팽팽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극정통파 유대인들이 동원되어 반대편 후보인 메이르 포루쉬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하나는 거리에서 제게 전화를 했고, 저희는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전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제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구르 하씨딴 Gur Chassidim"이 포루쉬 지지 단체를 떠나 바르카트를 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누가복음 11 장에 따라 어둠의 왕국이 분열되도록 기도한 그대로예요."

새 시장이 예루살렘 시에 쇄신을 일으키도록 기도합니다. 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 세속적 유대인, 종교적 유대인, 아랍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쇄신이 있도록 말입니다.

현 금융 위기의 영적 뿌리 -기업가들을 위한 메시지

많은 회사들이 파생 상품과 연쇄 저당을 인해 엄청난 이윤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그저 서류 상의 돈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직한 노동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 거짓 이윤을 창출한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일각에서는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본주의에는 청렴의 기준과 부패에 대한 법률, 그리고 베품이라는 제 1의 동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일단 자신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부의 목표는 1) 회중적 활동을 지원하고 2) 세계 선교를 하며, 3) 가난하고 억압 받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엔 의로운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업체를 거룩한 원칙에 의탁하고, 탐욕과 부패에 맞서며 하나님 왕국의 우선 순위에 따라 베풀면, 이러한 세계적 금융 위기 때에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삭이 가뭄 든 해에 뿌리고 100 배를 거뒀듯,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기근에도 불구하고 번영했듯, 이제 의로운 기업가들이 일어나 주도권을 취할 때입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필요한 위치로 옮기고 계십니다. 부의 재편, 곧 새로운 조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3:22 -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요 재정 원칙 두 가지는 1) 청렴 그리고 2) 관대다. 내무부와 2년을 싸운 후, 저희는 결국 성공적으로 새로운 법과 기준들을 승인 받았고, 이는 이스라엘 내 메시아의 몸 가운데 재정적 청렴함과 관대함의 기준을 높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해가 사상 최고의 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세계 선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사야 60:11 -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저희는 많은 이들에게 재정적 축복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바마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회

저희는 견고하게 생명과 가족적 가치를 지지합니다. 전면적 낙태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사들을 지명한다는 건 비극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저는 서구가 이슬람 지하드의 악함과 위협성을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음에 깊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군 부대의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최전선에서 맞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맥케인(McCain)이 애국심으로 군인 생활을 한 배경에 가치를 두지 않았음이 슬펐습니다. 언론이 페일린(Palin)을 공격하며 비난한 것은, 그녀가 예슈아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놓고 증거했던 데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미 대선은 성적 부도덕과 재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기도를 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압 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을 인해 교회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는 공존합니다. 심판 가운데, 진정한 도덕적 변화의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되, 또한 그 풍성한 자비를 인해 그 분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바마와 그의 수행원들을 이끄실 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잠언 21:1, 디모데전서 2:1-4, 예레미야 29:7). 입법부, 사법부, 군대, 기업, 교육과 언론계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모든 정부에 대한 영적 권세를 행사하심을 기억합니다(다니엘 4:17, 25, 32; 5:21).

우리 앞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두 가지 인종의 배경을 갖고 있음은 인종간 화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흑인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할 때엔,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슬림 출신인데도 기독교를 '선택한' 그를 인해서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바마는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전세계의 지도자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4년에서 8년은 전례 없는 부흥과 하나님 왕국 확장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와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요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이사야 60:1-3). 박해가 증가할 테지만, 복음의 선포도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되, 동시에 전세계 부흥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